

삶의 무게

내 삶의 무게는 얼마일까? 육신의 무게는 몸무게이니 하루에도 몇번씩 확인할 수 있다. 또 영혼의 무게는 21그램이라고 한다. 스웨덴의 룬데 박사팀이 환자들의 임종 직전과 임종 직후의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1그램의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메세추세스 병원의 임종 실험에서는 몸무게의 변화가 1온스였다고 한다. 21그램이든, 1온스(28.4mg)이든, 라면 한 젓가락 밖에 되지 않는 영혼의 무게는 영혼의 그릇 무게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영혼의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즐거움, 사랑, 기쁨, 행복, 감사 등의 무게는 클수록 가볍지만, 분노, 걱정, 실망, 욕망, 미움, 두려움 등의 무게는 클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사람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달라이라마처럼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가 새털처럼 가벼워 <나는 행복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것일까.

요즈음 나는 산다는게 부쩍 힘들게 느껴진다. 내 삶의 무게가 천근 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왜 이리 사는게 힘들까? 나만 힘든걸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내 삶의 무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첫째는 <일>에 대한 무게다. 나는 천성이 일을 좋아하여 일을 만들고 일을 벌리는 타입이다. <일>의 종류에는 생업과 같은 <먹고 사는 일>과, 취미와 같은 <부가적인 일>이 있다. <먹고 사는 일>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준엄한 분야다. 특히 요즈음 같은 장기 불황에는 벼랑 끝에선 빈곤층들의 자살이 줄을 잇는다. 나의 일은 대부분이 먹고 사는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빠르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 나의 일은 항상 제로에서 시작한다. 어제의 실적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고, 오늘의 고객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 몸은 몸대로 지친다. 나이를 먹은 탓인가, 몸이 약해진 탓인가. 일이 많아지니 돈벌이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다. 둘째는 <사람관계의 무게>다. 특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느끼는 삶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울 때가 있다. 누가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했던가. 자식이 여러명이다 보니 돌아가면서 애를 태운다. 이제 한 짐을 벗었나 하면 또 다른 자식이 다른 짐을 지워준다. 자식이라는 짐보따리는 도대체 몇개나 되는 것일까.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도 아내도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 잔소리와 분쟁만 늘어나고 실망과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이러니 가족이 아닌 타인들과의 관계는 무게를 느낄 틈도 없다. 세째는 <글쓰는 무게>다. 누가 글을 쓰라고 강제하는 사람도 없고 글쟁이가 직업도 아니다. 8년째 쓰고 있는 칼럼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일이다. 매주 다른 글을 써야 한다는,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언젠가 내가 죽고나서 내 자식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내 스스로의 강박관념이며, 올라미다. 언제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된다. 매주 시간에 쫓기어 써재끼는 글이니 글의 깊이가 없고 향기가 없다. 한마디로 <잡글>이다. 글쓰는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글을 써서는 안되는 후안무치인지도 모른다. 글은 내 욕심이다. 네째는 <돈에 대한 무게>이다. 물질적으로 여유있게 살고 싶어한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남들처럼 아내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벌고 싶어하지만 돈을 생각처럼 벌지 못하니 삶이 무겁기만 한 것이다. 다섯째는 <건강에 대한 무게>이다. 사는 날까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살아온 긴 세월이 결코 건강할 수 없는 생활 습관이었고, 지금도 결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없으니 항상 걱정만 앞선다. 죄를 짓고도 무죄이기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라고나 할까. 신체의 여러 기능은 이미 내 스스로 느껴질만큼 노화되어 간다. 건강은 두려움에 대한 무게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저런 나의 삶의 무게는 나의 욕심이라는 걸 잘 안다. 시작과 끝이 모두 욕심이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고 실망과 자기 상실이 커진다는 것도 잘 안다. 그분께 모든걸 내려놓고 감사와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항상 후회와 재다짐이 반복된다. 조나 놀란이 쓴 <메멘토 모리>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주인공의 대사는 “그런데 나는 어디 있었지?”로 유명하다. 라틴어인 메멘토(Memento - 기억하다, 생각하다)와

*본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씨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모리(Mori - 죽음)의 합성어이다. 즉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뜻이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아침인사가 <메멘토 모리>였다고 한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메멘토 모리는 더욱 준엄하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하지만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따라서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리 길게 남지 않은 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무게를 견딜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을까. 나 죽으면 그만인데 무얼 그리 애를 태울까?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한다.